

綜合學術大會 盛了

7月 10日~7月 20日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會長 閔寬植)와 在美 韓國科學技術者協會(會長 崔相壹)가 共同主催한 第5次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가 지난 7월 10일 개최되어 7월 20일 綜合評價會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在美科學者 160명 家族 143명 國內科學技術人 3,076명이 참석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참석율을 보여 그야말로 국제규모의 종합학술대회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대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술발표회에는 각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참석하여 서서 강연을 듣는 경우도 있었으며 강연이 끝날때 마다 진지한 질문이 오가기도 했다.

同大會 開會式이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崔亨燮 科學技術處長官을 비롯한 閔寬植 科總會長, 崔相壹 在美科協會長 太完善 商工會 議所會長 William S. BATES 주한 영국대사등 내외인사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개최식에서 閔寬植 科總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이 종합학술대회는 그간 다섯차례의 연륜을 쌓는 동안 서로간에 새로운 科學技術情報를 교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科學振興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이번에 珠玉 같은 研究論文을 통하여 向後 產業發展의 高度化와 科學技術 向上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80년대말 1,000억불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高度의 科學技術開發이 가장 急先務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외과학기술자들이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愛國의 一念으로 기탄없이 충고를 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崔亨燮 科學技術處長官은 致辭에서 「앞으로 우리 產業의 進路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한 頭腦集約的이고 技術集約的이며 資源節約的인 高度精密產業分野로 發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政府에서 現理工系大學과 大學院教育을 크게 확충하는 한편 基礎科學研究活動을 振作시켜나갈 것이며 技能人力의 精銳化를 꾀하고 產業界의 技術開發을 促進하여 企業이 技術革新의 主役이 되게 하는 동시에 政府는 國策的 長期課題라고 할 수 있는 大型技術開發에 힘을 기울여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崔장관은 또한 「現 GNP의 0.6%인 研究開發投資를 大幅擴大하여 81년까지 1.5%, 86년까지 2%線으로 확대하여 80년대 후반에는 先進國型 科學技術開發活動力을 전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서 在美科協代表로 人事말을 한 崔相壹 在美科協會長은 國內外科學技術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기초과학자들이 고급기술자들과 한 자리에 어울려 서로 배울 기회를 갖게된 것이 한국의 빛나는 앞날을 위한 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개최식이 끝난다음 내외과학기술자들은 科技處長官과 科總會長이 마련한 축하연에 참석하여 담소를 나누며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했다.